

보도시점 2024. 3. 28.(목) 14:00 배포 2024. 3. 28.(목) 11:00

전 국민 대상 온오프라인 경제교육 강화

-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경제교육 방향 논의
- '25년까지 총 50만 군 장병에 대한 경제교육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경제교육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이 새롭게 참석하여 경제교육 협력 기관의 의견을 넓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 국민 경제이해력** 제고를 위해 경제교육 확대 및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목적) 경제교육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사업 적정성 등을 심의·평가(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
(위원)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교육부, 중기부, 금융위 등 8명), 위촉직 위원(교육경제계 등 9명)

** '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KDI) : 전체 평균 점수 58.7점 / 고령층 53.6점<60대>. 46.8점<70대> / 월 200만원 미만 소득층 52.9점 등

우선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포함한 6개 기관*은 '25년까지 50만 군 장병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금년에는 25만 군 장병을 대상으로 경제 이슈, 재무·신용 관리, 금융사기 방지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군 장병을 위한 전문 강사진과 온라인 경제교육 시스템**도 구축되어 지속 가능한 경제교육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교육단체협의회, 지역경제교육센터,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군인공제회

**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내 '군 장병 전용 채널' 개설 추진 등

아울러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연간 교육생 수는 '23년 30만명 수준에서 '25년 40만명까지 확대될 계획이며, 다양한 경제 관련 콘텐츠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도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구축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기술혁신 등으로 우리 경제·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취약계층·군 장병을 포함한 전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상운	(044-215-255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044-215-2551)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사업팀	책임자	팀 장	주 영	(044-215-2990)
		담당자	사무관	홍지영	(044-215-2992)
		담당자	주무관	권민정	(044-215-2993)

